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6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11.40원 (-8.30원)

KOSPI

5,377.30 (+143.25, +2.74%)

KOSDAQ

1,063.75 (+7.41, +0.70%)

국고채 10년 금리

3.747(-0.057%p)

Special Report

4월 미주 PICK 하나	포성이 멈추면 필요한 것은 성장: B2C보단 B2B [김재임, 강재구, 김시현]

Global Asset Strategy

화수분전략	유가 구간별 주도업종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재만]
New K-ETF	K휴머노이드로봇 TOP2+, AI반도체 커버드콜 [박승진]
Econ Snapshot	미국 3월 비농업 고용: 불편한 균형 지속 [전규연]

기업분석

리노공업	넘쳐나는 개발 수요 [김민경]
삼성에스디에스	실적은 하반기가 중요 [이준호]

산업분석

은행	1Q 호실적 지속 기대. 다만 자본비율은 한시적 하락 예상 [최정욱]

Weekly

은행	편안한 흐름 지속될 전망 [최정욱]
철강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철강 산업 영향(Pros & Cons) [박성봉]
반도체/소부장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숫자로 입증될 업황 [김록호]
에너지/화학	남아도는 가스를 태워 없애는 미국 [윤재성]
음식료/담배	CJ제일제당 주가 반등과 아미노산 가격 + 3월 수출 Re [심은주]
2차전지	ESS 성장 지속, 기대감 없는 EV의 반등 [김현수]
디지털자산	박스권 횡보. x402 재단은 리눅스로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테슬라	1Q26 판매: 35.8만대(+6%). 컨센서스 하회 [송선재]
Tech&Stock Weekly	앤스로픽 신모델에 대한 문서 유출로 사이버보안 변동성 증가 [김재임, 김시현]
BYD	유가 급등의 수혜주, 앞으로의 중국 실적이 관건 [백승혜]
Hana China Weekly	신차 효과 및 유가 급등 수혜 가능한 전기차 기업에 주목 [백승혜]

WEDBUSH × 하나증권

Telsa	단기 실적 압박 vs AI 기반 구조적 성장 [박승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삼성증권, 한미약품, 엔씨소프트, CJ제일제당, LX인터내셔널, 리노공업, 케이엠더블유, 더블유씨피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2026년 4월 6일 | Global Asset Research

화수분전략

유가 구간별 주도업종은 어떻게 달라질까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철수 유예 기간 30일 합산 시 90일이다. 의회 승인이 없다면 4월 말부터 미국은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

향후 금융시장은 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 증가(현재 6척, 전쟁 이전 일평균 98척, 3/1일 20척) 여부와 ②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현재 1회 인상 반영, 최근 2회 인상까지도 반영) 하락 여부를 확인하며 점진적인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수 정상화 과정에 진입 시 가장 빠른 주가 회복을 예상할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다. S&P500 Tech 섹터의 투자 증가가 최근 3년간 글로벌 경기사이클 확장을 주도하는 변수다. Tech 섹터의 투자증가율(YoY)은 현재 49%로 연초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S&P500 반도체 PBR은 8.83배로 연 중 고점 대비 -39%, 코스피 반도체 PBR 1.89배로 연 중 고점 대비 -22% 하락했다. S&P500 반도체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은 50%, 코스피 반도체는 47%로 동반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하락 전환 전까지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 시 연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전쟁과 유가 상승에도 경기 둔화 우려 시 연준 기준금리 인하: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될 경우 지수 반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글로벌 경기가 소비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2년 2~7월 러/우 전쟁 당시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이상 수준을 6개월 정도 유지했고, 당시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에서 2022년 9월 이후 8%대로 낮아졌다. 당시 연준과 한국은행의 동반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었지만, 고유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기가 괜찮다고 가정해도, WTI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에서 영업이익률 하락 우려로 인해 업종 선별 전략이 쉽지 않다. WTI 가격 레벨이 낮아지는 과정에서의 업종 선별 전략은 가능해진다.

유가 구간별 업종 전략 시나리오 변수는 주가와 영업이익률이다(다만 글로벌 경기사이클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전략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 시 해당 국면 제외). ① WTI 배럴당 90달러 수준에서는 S&P500지수 내 미디어와 자본재, 코스피 내 조선과 기계와 같은 산업재 섹터의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주가수익률도 높았다.

② WTI 배럴당 90달러 수준에서는 부진했지만, 80달러 수준에서는 S&P500지수 내 하드웨어, 운송, 제약/바이오가 영업이익률 개선을 기반으로 부각되고, 코스피 내에서는 운송, 자동차와 2차전지, 철강, 화학 등과 같은 소재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았다.

③ WTI 배럴당 80달러 수준보다는 70달러 수준에서 부각되는 업종은 S&P500지수 내 은행과 소프트웨어가, 코스피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영업이익률 상승을 기반으로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6년 4월 6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K휴머노이드로봇 TOP2+, AI반도체 커버드콜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신규 상장 ETF(4/7)

-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 TOP2+, FOCUS AI반도체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TOP2+: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과 관련된 15개 기업으로 구성하되, 대표 2개 기업에는 각각 20%의 비중을 할당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집중형 ETF 종목이 되겠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국내 로봇 밸류체인 기업들을 선별해 편입하는 테마형 ETF인 동시에,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중심의 강력한 산업 생태계에 포함된 핵심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산업의 확장성을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종목이 되겠다. 국내 로봇 산업의 핵심인 완제품 기업과 핵심 부품 기업에 집중하여 휴머노이드 산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유동성 조건(시가총액 3,000억원↑, 평균 거래대금 10억원↑)을 충족하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상장 보통주 가운데 기계, 컴퓨터·전자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섹터 기업들을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유니버스 종목들에 LLM(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Humanoid Robot', 'Robotics Value Chain' 키워드와의 유사도 점수를 산출하여 테마 적합도가 높은 상위 15개 기업을 최종 편입하며, 빈번한 종목 교체 방지를 위해 기존 종목에 대한 버퍼 룰을 함께 적용한다.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키워드 유사도 상위 2개 종목(현대차, 로보티즈)에 각각 20% 비중을 배분하고, 나머지 종목은 테마 점수 80%와 유동시가총액 점수 20%를 결합한 종합 스코어에 비례하여 가중 방식을 적용한다. 특정 종목의 최대 비중은 상위 2종목 20%, 그 외 종목은 16%의 Cap Rate로 제한되며 최소 1% 이상을 유지한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걸쳐 진행한다. 0.45%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FOCUS AI반도체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이다. 'KRX AI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들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조합하여 커버드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KRX AI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주요 반도체 종목 20개로 구성된다.

커버드콜 포지션의 경우, 코스피200 콜옵션을 위클리 만기의 형태로 구축하며, 주식 포트폴리오 규모의 30% 비중까지만 매도하여 'KRX AI 반도체 지수' 주가 상승을 70% 가량 추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 커버드콜 전략 형태의 패시브 ETF가 되겠다.

코스피200 콜옵션 매도분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재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기준이 적용된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6월과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종목 확정 후

3거래일 이후)에 걸쳐 진행된다. 총 보수는 0.30%이다.

도표 1.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TOP2+, FOCUS AI반도체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의 종목 개요

ETF명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TOP2+	FOCUS AI반도체위클리고정커버드콜
상장일	2026년 4월 7일 화요일	2026년 4월 7일 화요일
기초지수	Akros K-휴머노이드 로봇 TOP2+ 지수	AI 반도체 위클리 고정 30% 커버드콜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45%	0.30%
구성종목 수	15종목	▫ KRX AI반도체 지수: 20종목 ▫ 코스피200 콜옵션: 2종목
비중결정방식	- 20%: '휴머노이드 로봇' 키워드 유사도 상위 2개 종목 - 나머지 : 종합점수 (테마 점수 80% 및 유동시가총액 점수 20%) 비례 가중방식	- KRX AI반도체 지수: 유동시가총액(가중)에 비례하여 산정 - 코스피200 콜옵션: KRX AI반도체 지수 규모 30% 수준의 명목 금액만큼 옵션 매도
정기변경	**연 4회** (매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영업일)	- KRX AI 반도체 지수: **연 2회**(매년 6월, 12월 마지막 매매거래일(D)을 기준으로 구성종목 및 편입 비중 확정 후 편입비중 결정일로부터 3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D+3) - 코스피200 콜옵션: **매주**(최종거래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결제주 또는 결제월 거래)

자료: KRX, 하나증권

Econ Snapshot

Economy | 2026.4.6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미국 3월 비농업 고용: 불편한 균형 지속

미국 3월 비농업 고용 Review: 일시적 약세 요인 정상화 등으로 고용 호조 시현

- **미국 3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17.8만 명 증가**하며 전월치(-13.3만 명) 및 예상치(6.5만 명)를 크게 상회. 지난 1월 고용은 12.6만 명 → 16.0만 명(+3.4만 명)으로 상향, 2월 고용은 -9.2만 명 → -13.3만 명(-4.1만 명)으로 하향 조정됨
- 3월 고용 호조는 지난달 일시적 약세 요인들(비영리 의료기구 파업, 한파 등)이 정상화된 영향이 주요. 카이저 퍼머넌트 파업 종료로 헬스케어 고용이 7.6만 명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고용도 1.4만 명 증가. 재화 부문 고용이 호조를 보인 점은 긍정적. 내구재를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이 1.5만 명 증가했으며, 건설업 고용은 2.6만 명 늘어나며 소폭 증가하는 추세. 반면 AI로 인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정보업은 3월에도 -0.3만 명 줄어들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방정부 고용도 -1.8만 명 감소
- **미국 3월 실업률은 4.3%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 예상치(4.4%)를 하회.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월(62.0%)보다 하락했으며, 2021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 핵심 경제활동참가율(25-54세)도 83.8%로 전월(83.9%)보다 하락. 영구 실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은 위험 요인이나 금번 고용보고서에서 실업 관련 지표들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음
- **미국 3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2% 상승**하며 예상치(0.3%) 하회. 제조업 임금이 전월비 0.5%, 서비스업 임금은 전월비 0.2% 상승

당분간 고용보다 물가를 우려하는 시선 커질 것. 다만 작금의 고용시장이 영구적 균형이 되기는 어려워

- 고용 호조가 일부 산업에 치우쳐져 있지만 신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고용보다 물가 리스크를 높게 보는 시장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큼
-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금리선물시장은 12월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76.3% → 69.5%로 낮춰 반영
- 당장 3월부터 나타날 미국 물가 상승 리스크는 고용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하방 리스크보다 크게 느껴질 소지
- 미국 고용시장은 기업의 구인 수요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동반 줄어들며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파월 의장은 3월 FOMC에서 고용 증가가 제로인 균형(zero employment growth equilibrium)에 대해 불편한 균형이라고 언급. 특히 이러한 균형은 이민자 감소로 인한 노동 공급 축소 영향이 주요한데, 미국 이민자 노동가능인구는 25년 9월 저점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영구적인 균형이 될 수는 없을 것
- 한편 노동시장의 역동성 저하로 퇴사율이 1.9%까지 낮아지며 임금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임금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수요측 물가 압력이 커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 하나증권은 유가 발 물가 상승이 단기에 그칠 확률이 높고, 고용시장에 내재된 하방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 연준이 연내 1차례(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

2026년 4월 6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리노공업 (058470)

넘쳐나는 개발 수요

BUY (유지)

목표주가(12M)	170,000원(상향)
현재주가(4.03)	110,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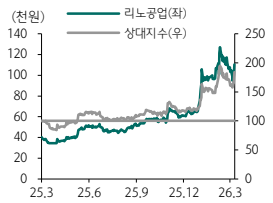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63.75
52주 최고/최저(원)	127,000/34,460
시가총액(십억원)	8,413.8
시가총액비중(%)	1.43
발행주식수(천주)	76,211.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51.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3.5
외국인지분율(%)	23.38
주요주주 지분율(%)	
이채윤	34.66
미래에셋자산운용 외 2 인	8.3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34.0	514.9
영업이익(십억원)	211.1	254.9
순이익(십억원)	181.0	218.5
EPS(원)	2,375	2,867
BPS(원)	11,358	13,40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78.2	372.5	455.0	555.8
영업이익	124.2	177.0	215.3	263.0
세전이익	146.5	195.9	238.1	299.4
순이익	113.3	152.0	183.4	231.4
EPS	1,486	1,994	2,406	3,037
증감율	2.13	34.19	20.66	26.23
PER	25.79	30.24	45.89	36.35
PBR	4.67	6.26	9.83	8.22
EV/EBITDA	18.47	21.77	34.01	27.65
ROE	19.20	22.45	23.14	24.69
BPS	8,201	9,625	11,235	13,425
DPS	600	800	850	1,00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우려는 기회, 목표주가 17만원으로 상향

리노공업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예상 EPS 2,406원에 Target PER 69.83배를 적용했으며 Target PER은 ISC와 Winway의 PER 평균이다. 리노공업은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 역성장 우려로 인해 주가 조정이 있었으나 [1]하이엔드 스마트폰 OEM은 상대적으로 가격 흡수력이 높아 메모리 반도체 공급부족을 점유율 확대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2]리노공업의 매출 대부분은 R&D용 테스트 소켓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2026 Preview: R&D 수요가 성장을 견인

26년 1분기 매출 1,046억원(YoY +33%, QoQ +23%), 영업이익 477억원(YoY +37%, YoY +18%, OPM 46%)을 기록할 전망이다. 1분기는 전통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의 모바일 신모델 판매량 호조와 자체 칩 개발 기조가 전사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6년 매출 4,550억원(YoY +22%), 영업이익 2,153억원(YoY +22%, OPM 47%)을 기록할 전망이다. 26년 주요 고객사들의 2나노 기반 AP 도입과 함께 WMCM(Wafer-Level Multi Chip Module) 패키징 등 신규 패키징 기술 채택이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견조한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선단공정 기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반도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넘쳐나는 개발 수요

Agentic AI 확산에 따른 추론 중심 워크로드 증가는 고속·초저지연 반도체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초고속 통신 환경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개발 수요 확대 및 테스트 요구사항 증가로 전체 테스트 소켓 업종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리노공업은 강력한 미세 피치 대응력을 기반으로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G 인프라 도입 시기가 점진적으로 앞당겨질 경우, 초고속·초저지연 환경을 요구하는 반도체 개발 수요가 더욱 확대되며 동사의 성장 모멘텀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발열, 고속 전송 및 신호 무결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열관리 솔루션을 포함한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ASP 상승 효과도 동시에 기대된다.

2026년 4월 6일 | 기업분석_Preview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실적은 하반기가 중요

BUY(유지)

목표주가(12M)	220,000원
현재주가(4.03)	152,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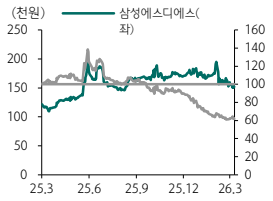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377.30
52주 최고/최저(원)	195,000/109,600
시가총액(십억원)	11,776.9
시가총액비중(%)	0.27
발행주식수(천주)	77,377.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33.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0.1
외국인지분율(%)	21.46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11 인	48.93
국민연금공단	8.7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565.1	15,449.4
영업이익(십억원)	1,023.3	1,111.3
순이익(십억원)	861.8	937.5
EPS(원)	10,849	11,807
BPS(원)	135,670	144,34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3,828.2	13,929.9	13,954.9	14,801.5
영업이익	911.1	957.1	947.6	1,111.0
세전이익	1,102.8	1,075.8	1,108.3	1,285.1
순이익	757.0	759.5	795.6	922.5
EPS	9,783	9,816	10,282	11,923
증감율	9.16	0.34	4.75	15.96
PER	13.06	17.47	14.80	12.77
PBR	1.06	1.34	1.13	1.06
EV/EBITDA	3.44	5.07	4.12	3.80
ROE	8.42	7.89	7.81	8.54
BPS	120,638	128,172	135,266	143,999
DPS	2,900	3,190	3,190	3,190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1Q26 Pre: 컨센서스 하회 전망

삼성에스디에스는 1분기 매출액 3조 2,893억원(-5.7%YoY, -7.0%QoQ), 영업이익 1,648억원(-38.6%YoY, -27.1%QoQ. OPM 6.3%)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1) 일회성 비용(퇴직금 관련)의 반영, 2) 일부 MSP 사업의 이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분기 IT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조 6,158억원(+1.0%YoY, -3.2%QoQ)으로 추정한다. 클라우드 매출 6,977억원(+6.9%YoY, +1.5%QoQ) 내 CSP는 3,018억원(+13.0%YoY, +11.2%QoQ), MSP는 2,957억원(+4.0%YoY, -5.0%QoQ)으로 예상한다. 공공향 사업이 현재 구축 단계로 매출 발생을 위한 비용 반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MSP 일부 사업이 2분기로 이연된 것으로 파악된다. 1분기 물류 부문 매출액은 1조 6,735억원(-11.4%YoY, -10.4%QoQ)으로 추정한다. 이란 전쟁으로 운임 증가가 있었으나 물동량이 그 이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상저하고 전망 유효

2026년 매출액 13조 9,549억원(+0.2%YoY), 영업이익 9,476억원(-1.0%YoY, OPM 6.8%)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류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클라우드 매출액은 3조 766억원(+14.8%YoY)로 추정한다. CSP, MSP의 사업 구축, 매출 반영 시점은 분기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으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B300 서비스의 매출은 2분기부터, 공공향 생성형AI 사업의 매출은 하반기 본격적으로 인식될 예정이다. 관계사들의 글로벌 LLM 서비스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매출도 기대된다. 공공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20,000원 유지

삼성에스디에스의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20,000원을 유지한다. 연초 대비 SI 기업에 대한 관심은 감소했으며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다. 삼성에스디에스의 사업은 예정대로 순항 중이다. 구미 데이터센터 건설은 계획대로 되고 있으며 국가AI컴퓨팅센터는 지난 3일 전남 해남에 건축 허가를 접수했다. 4월 중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8개월간 공사 기간을 거쳐 2028년 4월 시범운영, 10월 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확보까지 시간이 필요하기에 일부 비용이 동반될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이며, 이후 매출 반영 시 고성장도 숫자로 증명될 것이다. 글로벌 대비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의 명확한 수혜 강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시점이지만, 향후 삼성에스디에스의 실적에서 확인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한다. 매수 접근 유효하다.

2026년 4월 6일 | 산업분석_Industry Preview

은 행

1Q 호실적 지속 기대. 다만 자본비율은 한시적 하락 예상

Overweight

Top Picks

KB금융(105560)
BUY | TP 200,000원 | CP 145,500원

신한지주(055550)
BUY | TP 126,000원 | CP 91,800원

1분기 은행지주사 추정 순익은 약 6.8조원. 핵심이익 개선으로 컨센서스 상회 예상

1분기 은행지주사 추정 순이익은 약 6.8조원으로 YoY 9.6% 증가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배경은 구조적 측면에서의 핵심이익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 가계대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 증가로 인해 1분기 원화대출성장률은 1.2%를 기록해 연간 목표치에 순항하고, 2) 은행 NIM은 전분기대비 약 1~2bp 상승해 양호한 순이자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3) 최근 급등락하고 있지만 KOSPI 지수가 한단계 레벨업되고 거래량이 큰폭 증가하면서 증권중개수수료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이익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4) 반면 시중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채권평가손과 외화환산손실 발생이 예상되지만 수수료 증가가 이를 상쇄해 비이자이익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top-line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연체율 상승에도 은행 대손비용 또한 안정적일 공산이 크다. 한편 홍콩 ELS 과징금의 경우 금융위의 최종 결론이 지연되면서 1분기에는 관련 추가 비용 내지 환입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별로는 대형은행들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 중소형은행들은 다소 밋밋할 전망

은행별로는 상대적으로 증권사 이익기여도가 높은 대형 은행지주사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1.82조원과 1.63조원의 순익을 시현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1.20조원과 8,650억원의 순익을 시현하면서 컨센서스는 상회하지만 상회 폭은 KB금융과 신한지주 대비 크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 외 중소형은행들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BNK금융 1분기 순익은 2,000억원 내외에 불과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 손익 변동성 확대를 가져왔던 대손비용 증가 때문이 아니라 비이자이익 부진 때문이다. 증권의 중개수수료 이익기여도가 낮은데다 트레이딩관련 손익이 크게 부진하고, 은행에서는 채권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금리와 환율 상승 요인 등으로 CET 1 비율은 한시적으로 다소 큰폭 하락 추정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은 NIM 상승 기대를 불러와 은행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FV-OCI 평가손 발생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로 CET 1 비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분기 중 90원 가량 상승하면서 약 15~20bp의 CET 1 하락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바젤 3 경과 규정 도입에 따른 비은행 보유 주식 위험가중치 상향 등으로 평균 15bp 내외의 하락 압력이 추가 발생하면서 1분기 대형 은행지주사들의 CET 1 비율은 평균 25~30bp 내외씩 하락할 전망이다. 중소형은행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하락 요인이 적고, 바젤 3 경과 규정 영향도 미미해 CET 1 비율이 평균 10~15bp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는 은행지주사 중에서 유일하게 CET 1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3%에 근접하는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자산부채 구조상 금리 상승에 따른 NIM 민감도는 우리금융, 하나금융, 기업은행이 큼

2025년말 기준 유니버스은행의 전체 원화금리감응자산은 2,304조원이고, 원화금리감응부채는 약 1,957조원으로 원화금리감응자산이 약 347조원 많다(원화금리감응갭 +). 따라서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리 상승 폭만큼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에 동일하게 전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론적으로 은행들은 NIM이 상승하는 구조이다. 구간별로는 6개월 이하 구간까지 원화금리감응갭이 양(+)의 값을 보이므로 NIM이 상승하고, 6개월 이후에는 NIM이 하락하지만 금리 25bp 상승 가정시 1년동안 누적 NIM이 평균 약 2.5bp 상승하는 구조이다. 금리감응자산과 부채 구조의 차이에 따라 은행별로 NIM 변화 폭도 달리 나타나는데 우리 분석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기업은행의 NIM이 약 3~3.5bp 상승해 금리 상승에 NIM 상승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NIM 대비 증감율은 약 2.0~2.3% 내외이다. 반면 KB금융과 신한지주, iM금융은 NIM 상승 폭이 1.5bp 내외에 그쳐 은행 중 NIM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NIM 대비 증감율은 약 1.0% 내외이다. 물론 이는 금리 상승분이 여수신 금리에 동일하게 전가된다는 이론적인 가정하에 산출되는 수치로 실제로는 은행들의 여수신 금리 정책과 예대율 변화, 그리고 조달 상황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현실에서는 실제 NIM 변화가 이론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영향은 1~2bp 내외. 계속적인 하락 요인 작용은 부담

금융당국이 올해 1월부터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한 가운데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주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 및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험가중치 하한 추가 상향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 전체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될 경우 이론적인 CET 1 비율 하락 폭은 평균 26bp이고, 25%로 추가 상향시에는 51bp 가량 하락 전망한다(2025년말 은행지주사들의 평균 CET 1 비율은 13.0%로 각각 12.74%와 12.49%로 하락 추정). 다만 금번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은 금융회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를 감안해 대출잔액 전체가 아닌 신규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분기에 미치는 CET 1 비율 하락 영향은 약 1~2bp에 불과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등으로 향후에도 주담대 신규 취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소폭이나마 계속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우려 본격화 이전까지는 타섹터 대비 편안한 흐름 지속 예상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NIM 개선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현 평균 PBR이 0.64배로 은행주는 수익성 대비 대표적인 저평가업종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타섹터 대비 편안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대손비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논리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경기 우려가 본격화된다면 은행주도 후행적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될 가능성은 분명 상존한다. 은행업종 최선호주로 KB금융(매수/TP 200,000원)과 신한지주(매수/TP 126,000원)를 제시한다. 은행 중 올해 증권자회사의 이익 기여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 총주주환원율이 50%를 상회해 가장 높았던데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 상향될 공산이 크며, 각각 12조원과 6.8조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 보유로 내년부터 비과세 배당이 시작되면 개인고액자산가들의 매수세 유입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편안한 흐름 지속될 전망

은행 Weekly | 2026.4.6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은행주 초과하락. 은행주 약세 배경은 그동안의 초과상승과 국채금리 하락 전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때문으로 추정

- 전주 은행주는 3.9% 하락해 KOSPI 하락률 1.1% 대비 초과하락했다. 트럼프의 종전 선언은 없었지만 어떤식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이 선별적으로나마 개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부각되면서 지수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은행주의 경우 이란 공습 시작 이후 KOSPI를 상대적으로 outperform했던데다 그동안 상대적 주가 선방 요인으로 작용하던 국채금리가 지난주에는 하락전환했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발표 및 KOFR 기반 주택대출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
-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했는데 글로벌 채권 패닉 매도 흐름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다. 국내 국채금리는 WGBI 편입 시작으로 더 크게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3.75%로 한주간 17bp 하락했다
-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KOSPI를 한주간 약 6.7조원 대량 순매도했지만 금요일에는 9,350억원을 순매수해 12영업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전주에도 외국인은 은행주를 약 3,900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를 5.3조원 순매수했고, 은행주도 3,600억원을 순매수했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겠지만 추가 규제 예고. 올해 주담대 성장률 0%에 근접할 듯

-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설정하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아파트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며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추정 다주택자의 만기일시상환 대출규모는 약 4.1조원, 이 중 26년 중 만기도래분은 약 2.7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907조원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은행 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거주 1주택, DSR 확대 적용 및 주담대 RWA 추가 상향 등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5%이지만 주담대는 그보다 더 낮을 것이고, 올해 주담대 성장률은 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
- 금번 대책에는 올해부터 하한이 20%로 상향된 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의 추가 상향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가 반영 및 고액주담대 추가 자본 부담 가능성도 상존한다. 현재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은행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위험가중치 25%로 추가 상향시 대출잔액 전체 기준으로는 CET 1 비율을 약 25bp 이상 추가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금주 주요 이슈는 한은 금통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동결 전망.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화될 공산은 크지 않음

- 금주 주요 이슈는 한은 금통위다. 부동산 규제 분위기와 더불어 중동 사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인하는 매우 어렵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인상 또한 어렵기 때문에 금리 동결 전망이 대다수이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의 방향성일텐데 WGBI 편입이라는 수급상 호재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쟁 추경과 중동사태 장기화이다, 고유가 지속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은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화될 공산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은행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 다만 시중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인해 가산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지는 않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출금리 관련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상존한다. CD금리의 KOFR금리(국채 및 통안채를 담보로 한 RP금리) 대체 가능성 등도 NIM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1분기 실적 양호하겠지만 CET 1 비율은 한시적으로 다소 크게 하락 예상. 2분기에는 다시 상승 기대. 편안한 흐름 지속될 전망

-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CET 1 비율은 한시적으로 다소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 1분기 CET 1 비율 하락은 환율 상승과 OCI 평가손 발생 및 바젤 3 경과 규정 등의 요인 때문으로 2분기에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동 사태가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는 한 은행주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 및 편안함 측면에서의 매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매수/TP 200,000원)과 신한지주(매수/TP 126,000원)를 제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철강 산업 영향(Pros & Cons)

철강금속 Weekly | 2026.04.06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0만원(WoW, +3.4%), 열연 수입유통가: 87만원(WoW, +2.4%), 철근 유통가: 82.5만원(WoW, +3.8%), 후판 유통가: 96만원(WoW, +2.1%)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025달러(WoW, +1.0%), 중국 열연 유통가: 3,295위안(WoW, -0.1%), 중국 냉연 유통가: 3,777위안(WoW, -0.3%), 중국 철근 유통가: 3,219위안(WoW, +0.2%)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5.6달러(WoW, -0.8%), 한국 스크랩가: 42.3만원(WoW, -0.2%), 호주 원료탄(FOB): 236.8달러(WoW, +1.2%)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2,147달러(WoW, +0.8%), 아연: 3,263달러(WoW, +4.7%), 연: 1,912달러(WoW, +2.7%), 니켈: 16,898달러(WoW, -0.6%), 금: 4,652달러(WoW, +3.5%), 은: 72.9달러(WoW, +4.9%)

- 국내 철강 유통가격: 주요 제품 4주 연속 상승, 철강사들의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과 수입산 가격 상승이 원인
- 중국 철강 유통가격: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약보합세 기록
- 산업용 금속가격: 미달러 약세와 미국-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대부분 상승 마감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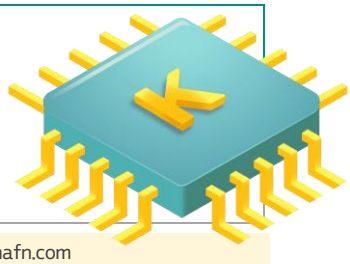
  POSCO홀딩스: 34.75만원(+1.3%), 현대제철: 3.43만원(-2.1%), 세아베스틸지주: 6.73만원(-3.2%), 고려아연: 148.4만원(+0.1%)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6.4위안(-0.5%), A. MITTAL: 45.66유로(+4.9%), NSSMC: 585.0엔(-2.0%), TATA STEEL: 194.14루피(+0.5%), NUCOR: 172.46달러(+5.6%)

- 총평: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 국가별로 차별화. 내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철강사들 주가 2주 연속 큰 폭 상승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숫자로 입증될 업황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4.6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방향을 달리 한 메모리 업체들 주가

- 26년 3월 영업일 평균 메모리 반도체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한 9.9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DRAM은 전년동월대비 262% 증가한 3.8억 달러, NAND는 전년동월대비 360%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MCP는 전년동월대비 123% 증가한 4.1억 달러를 기록했다. NAND의 영업일 평균 수출금액이 1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최근 NAND의 가격 상승폭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전월대비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6% 증가했고, DRAM과 NAND는 각각 전월대비 플랫, 46% 증가했다. MCP는 3% 증가했다.
- 코스피 지수는 1.1% 하락해 2주 연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미국-이란 갈등의 장기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전자는 3.6%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5.0% 하락하며 주가 방향이 상이했다. 미국-이란 간 대외 불확실성 속에 Google의 Turbo Quant발 주가 하락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한 반면에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이 지속되었다. DRAM 현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주 환원에 대한 재원이 명확한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동반 하락했고, 폭은 6.8%로 하락폭이 컸다. 미국-이란 간 갈등 이후에 4주 연속 코스피대비 변동폭이 작은 추세가 지속되었었는데, 이번에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미국-이란 갈등의 장기화 우려로 인해 안정적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물로 판단된다. 하나증권 커버리지 중소형 업체들은 지수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이 2주 연속 지속되었다.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니즈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부장 업체들은 코스닥 내에서 실적 기반으로 추천 가능한 업종군이기 때문에 금번 주가 하락이 비중확대 기회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전망 및 전략: 삼성전자 잠정 실적으로 분위기 전환. 비중확대 전략 유지

- 4월 7일에 삼성전자의 26년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1월말 4분기 실적 리뷰 이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 높아졌다. 하나증권도 두 번의 보고서를 통해 실적을 상향했는데, 3월 중에도 예상보다 강한 메모리 가격 상황이 지속 관찰된 만큼 당사 추정치인 38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분기 메모리 가격 역시 추정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외 메모리 업체들은 2월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3월 미국-이란 갈등 속에서 조정 기간을 겪었다. 해당 구간에서 DRAM 현물가 상승세도 주춤했고, Google의 Turbo Quant 등도 불거졌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업황 관련 불안한 이슈들이 동시에 나타났던 것이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하나증권이 파악하고 있는 업황 및 실적은 기존 전망대비 오히려 더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 DRAM 현물가의 정체는 일부 B2C 업체들의 원가 부담으로 인한 주문 감소 및 가격 저항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래 예상했었던 시나리오이며, 하나증권은 2월 말에 작성한 “무엇을 볼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 및 PC 출하량이 전년대비 20% 감소하더라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현물가에 노출되어 있는 일부 업체들의 상황은 현재의 메모리 업황을 대변하기 어렵다. 대만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한 것도 해당 업체들이 B2C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 소부장 업체들 주가가 최근 2주 연속 부진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적 기반으로 추천 가능한 업종군이기 때문에 금번 하락이 비중확대 기회라고 판단한다. P4 및 M15x의 신규 투자로 인해 상반기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고, 메모리 업체들의 1c나노 및 NAND 고단화 투자 규모 역시 연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전공정 장비 업체를 필두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남아도는 가스를 태워 없애는 미국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4.06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남아도는 가스를 태워 없애는 미국

- **총평**

- WTI 111.5$/bbl(+12%), Dubai 114.6$/bbl(-6%). 정제마진 82.3$/bb(WoW +43.2$)로 역대 최대. 아세톤 +10% 등 강세
- 4월 중순 이후 아시아 에너지/화학 업체 원료 확보 진통 예상. 글로벌 공급망 혼란 예상. 보수적 대응 필요. 추천종목 없음

- **남아도는 가스를 태워 없애는 미국**

- **미국과 아시아/유럽 가스 가격 간의 De-Coupling:** 미국 천연가스 가격의 벤치마크인 Henry Hub는 현재 2.8$/mmbtu로 전쟁 직전과 거의 유사. 반면, 아시아 JKM LNG는 +77%, 유럽 TTF는 +58% 급등
- **전쟁 중인데 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왜 안정적인가:** EIA는 2026년 3월 STEO(단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7년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전망치를 124 Bcf/d(YoY +2.7%)로 기존 대비 +2 Bcf/d 상향 조정. 즉, 2027년 생산량 증가율을 기존 YoY +1.1%에서 YoY +2.7%로 상향하면서 오히려 미국 Henry Hub는 안정화된 것
- **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전망치는 상향되었나:** 미국 가스 생산은 주로 본토(Lower 48)에서 이뤄지며, 핵심은 Appalachia와 Permian, Haynesville 분지로 각각 생산 비중 31%, 23%, 13%. 특히, 최근 생산량 증가는 주로 Permian과 Haynesville 중심. 이번 EIA의 2027년 미국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 전망치 상향은 Permian 때문.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Permian의 2027년 원유 생산량 전망치는 기존 대비 +6%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Permian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반가스(Associate gas=Wet gas) 생산량도 동반 상향 조정된 것. 참고로, Permian 분지는 미국 최대 원유 생산지로 원유 생산 시 천연가스가 동반되어 생산
- **Permian의 천연가스는 돈을 주고 팔아야 한다. 아니면 태워 버리던지:** 미국 Permian 가스의 허브는 Waha. Waha의 천연가스 가격은 4/2일 현재 -4.6$/mmbtu으로 Henry Hub 2.8$/bbl 대비 -7.4$/mmbtu 저렴. 이는 곧 가스를 돈 주고 팔아야 한다는 의미.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스 생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비 원유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스를 태우는(Flaring) 한이 있어도 원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선택. 실제, 올해 Flaring 건수는 월별 기준 최근 5년 래 가장 높은 수준. 이같은 가격 왜곡은 Waha에서 LNG 수출터미널인 Gulf Of America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Waha에서 LNG 터미널까지 파이프라인 지속 확장:** 2026년 상반기에는 Waha의 가스 운송 병목이 발생하나, 하반기부터는 병목 해소 기대. 2026년 중반 Kinder Morgan의 Gulf Coast Express(GCX) Expansion +0.57 Bcf/d, 2026년 하반기 Enbridge/MPLX의 Blackcomb 2.5 Bcf/d, 2026년 말 Energy Transfer의 Hugh Brinson Phase 1 +1.5 Bcf/d 등이 가동되기 때문. 즉, Waha에서 LNG 터미널까지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경우, 이는 미국 Henry Hub 가격 동반 하향 안정화 요인
- **중기적으로 높은 유가 전망. 이는 미국 가스 가격 안정화 요인:** 호르무즈의 극적인 개방 시에도 항만 적체 및 광구 재가동에 걸리는 시간, 재고확보 수요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유가는 높은 수준 예상. 이는 결국, 미국 가스 가격 안정화 요인
- **결론: 1) 트럼프의 자신감은 안정적인 가스 가격에서 나오는 듯. 미국-이란 모두 끝까지 버틸 유인이 있다는 점이 아시아 입장에서는 고통일 뿐 2) 미국 가스(LNG/LPG)를 받아쓰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 중국 ECC/PDH, 혹은 한국 일부 PDH가 해당. 아시아 NCC는 상대적으로 불리 3) Henry Hub 연동 LNG를 트레이딩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발전사도 상대적으로 유리 4) 중장기 미국의 가스 파이프라인 확대/LNG 수출 확대 의지는 명약관화.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산업재 유리 5) 당장은 원료 조달 리스크 관점에서 추천종목 없음. 다만, 전쟁 이후에는 분명 산업재/소재 산업에서의 기회 요인이 발생할 것**

- **트럼프 대국민 담화 발표: 에너지 산업 Update(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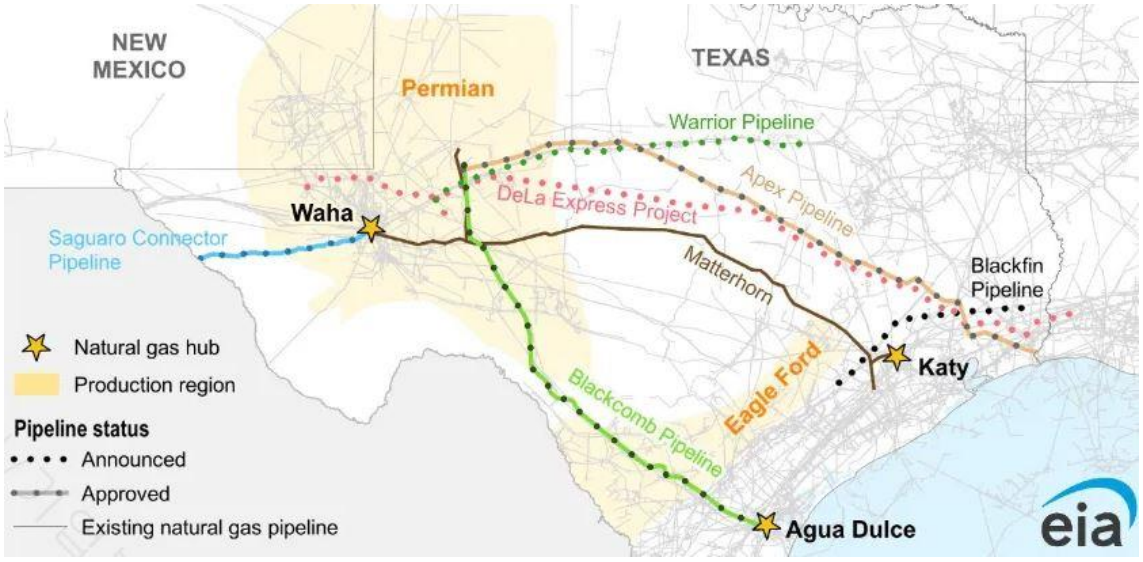
- 4/1일 오후 9시(ET 기준) 약 20분 간 진행. 1) 이번 전쟁의 목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으며, 향후 2~3주에 걸쳐 이란에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가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혀. 2)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라 강조. 이란이 재건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은 자국의 공급망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며, 대안으로 미국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다고 제안. 미국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없으며, 향후에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

(이어서)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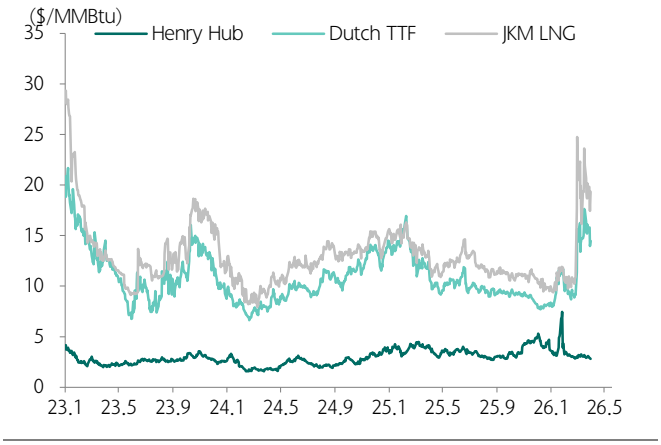
- 석유제품 시장 영향: 정제마진 82.3$/bbl(WoW +43.2$)로 역대 최대치 기록. 등유/경유/납사 마진 또한 역대 최대치 달성했으며, 휘발유와 B-C 마진도 급등하는 등 석유제품 시장 대혼란. 유럽 디젤 선물 가격 WoW +11%
- 가스 시장 영향: 아시아 JKM -3%, 유럽 TTF -10%. 미국 Henry Hub -10%
- 석유화학 시장 영향: 납사 보합 Vs. 아세톤 +10%, LLDPE/ABS/페놀/MDI/TDI/DOP +7%, BPA +6%, 에틸렌/HDPE/SBR +4%

도표 1. Permian Waha에서 LNG 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주요 파이프라인 증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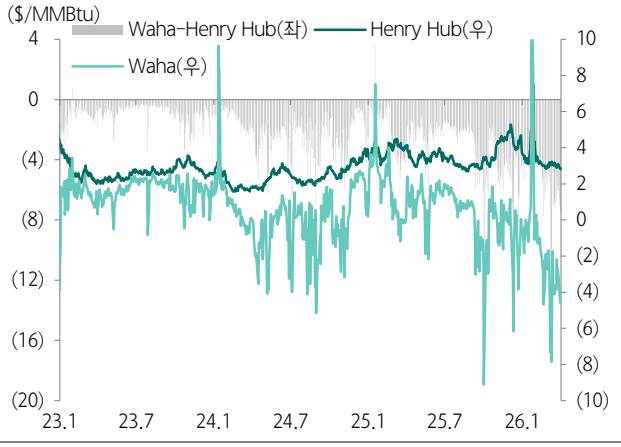
자료: EIA, 하나증권

도표 2.Henry Hub는 상대적으로 안정화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Waha 가격은 현재 -4.6$/mmbtu 수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J제일제당 주가 반등과 아미노산 가격 + 3월 수출 Re

음식료/담배 Weekly Comment | 2026.4.6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 주간 리뷰/전망 및 이슈 코멘트

1) 주간 리뷰 및 전망

- 전주 음식료 업종지수는 코스피 대비 0.9%p 아웃퍼폼 시현, 종전에 대한 노이즈가 지속 생성되면서, 4월 들어서도 극심한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음. 주중 내내 변동성 장이 연출되었는데, 유가 상승에 따라 주요 원자재(소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미노산 Spot price도 높은 레벨에서 유지되는 모습. 3월 들어 주요 아미노산 중국 Spot 가격은 25% 내외 급등, 선망 참치어가도 YoY 15% 상승한 톤당 1,950불에서 거래 중
- 한편, 섹터 대장주인 삼양식품 주가가 4.8% 상승하면서 유의미한 반등세를 시현함. 1분기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3월 라면 수출 데이터도 양호한 흐름 보여줌. 일본 Peer 밸류에이션 하방이 15배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 120만원까지의 반등은 무리 있는 수준 아니라는 판단. 참고로, 120만원은 2026F/27F PER 각각 17배/14배 수준임. 중국 공장이 빠르면 11월부터 시가동 할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내후년은 한국/중국에서의 Capa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구간임. 28년까지 높은 성장성 감안시, 중단기 주가는 140만원(27F PER 15배)까지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더불어, 대장주 삼양식품의 양호한 주가 흐름은 섹터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 하나증권은 올해 오리온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 이번주 오리온 주가는 배당락으로 주중 초반 주가 하락하다가 주중 중반 들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줌. 2026년은 10년 만에 중국 두 자리 수 탑라인이 예상되기 때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미 진출을 위해 멕시코 대형 유통 채널에 납품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수출 확대 모멘텀은 연중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전망.
- 전주 상승: CJ제일제당 +5.4%(아미노산 Spot 가격 상승세), 삼양식품 +4.8%(1분기 호실적 기대), 더본코리아 +1.0%(저가 매수 유입) 등
- 전주 하락: 대상 -6.4%(차익 실현 매물 출하), CJ프레시웨이 -6.0%(1분기 실적 시장 기대 하회 예상), 동원산업 -5.4%(어가 강세에도 시스템즈 실적 부진 부담), 롯데웰푸드 -4.8%(차익 실현 매물 출하), 빙그레 -3.8%(1분기 실적 시장 기대 하회 예상), 롯데칠성 -3.7%(1분기 실적 시장 기대 하회 예상) 등

2) 주간 이슈 코멘트

(1) CJ제일제당 주가 반등과 아미노산 가격

-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손익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3천억원을 유지하다가 3Q25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분기 700억원 내외에서 3Q25 OP 220억원→4Q25 5억원→1Q26 -50억원(하나증권 추정)이 예상된다. ① 작년 상반기 유럽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규제가 시작되면서 쌓였던 중국 물량이 하반기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② 중국의 내수 부진 기인한 전반적인 아미노산 수요 부진과 더불어, ③ 경쟁사의 Capa 증설로 판가 하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현재 영업환경이 다시 우호적인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① 전반적으로 대두박을 포함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대체재인 아미노산의 판가도 덩달아 움직이는 가운데, ② 제반 비용 증가를 이유로 중국 주요 Player가 3월 중순 판가 10% 인상을 발표했다. 아미노산 가운데도 메치오닌 Spot 가격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다른 아미노산(라이신, 쓰레오닌, 트립토판 등)이 3월 이후 25% 내외 상승한 반면, 메치오닌은 160% 상승했다. CJ제일제당을 제외한 경쟁사는 주로 DL-메치오닌을 생산하는데, 메탄 등 생산 원료 업체로부터 공급 불가항력 선언을 받으면서 일부 공장 생산 중단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기 공급 우려로 메치오닌 Spot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한편, CJ제일제당은 L-메치오닌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료 조달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SS 성장 지속, 기대감 없는 EV의 반등

2차전지 Weekly ⚡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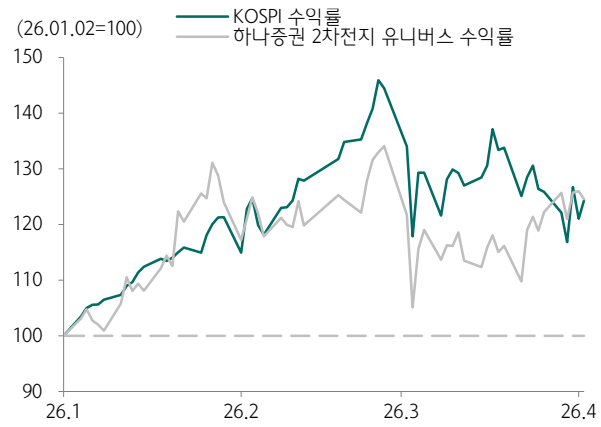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셀 메이커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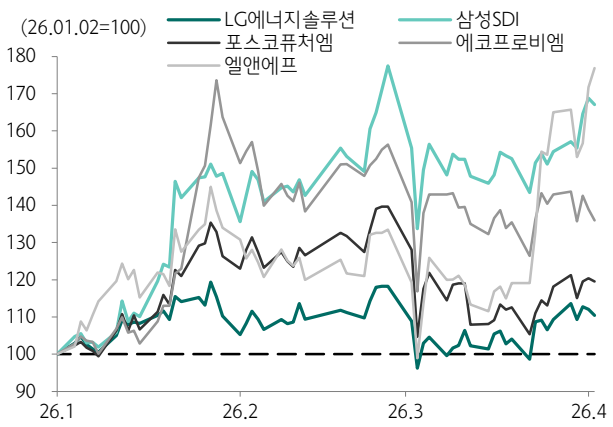
- 3월 미국 전기차 BEV 판매는 YoY -27% 감소했지만, 6개월만에 8만대 수준을 회복하며 MoM +22% 증가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차 수요 개선을 기대케하는 변화다. 소비자 구매 유가가 유럽 대비 현저히 낮은 미국의 경우, 전기차의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비용)가 내연기관차 대비 낮아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9.1년에 달한다(유럽 평균 5년 이하).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을 반영하면 TCO 역전 기간이 6년 내외로 줄어 들어 수요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현재 LGES, 삼성SDI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향후 3년간 전기차 부문 실적 회복이 극히 미미함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ESS는 매우 가파른 성장을 가정하고 있어,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은 의외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나올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없으므로 올해 주가의 플러스 알파 요인은 오히려 ESS 보다 EV에서 나올 수 있다.
- ESS의 경우 성장축이 친환경에서 안보로 이동하며 실적 및 Valuation factor 모두 견조한 상황이다. 2월 글로벌 ESS 설치량은 YoY +45% 증가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2026년 ESS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3배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테슬라의 1분기 ESS 설치량이 YoY -15%, QoQ -38% 감소한 것은 부정적이나, EV와 달리 B to C 기반인 ESS 사업 특성상 특정 월/분기별로 출하 변동폭이 커, 해당 분기 설치량 감소를 시장 수요 둔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반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수혜 확고한 동시에 상기한 EV 기대치가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를 권고한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박스권 횡보. x402 재단은 리눅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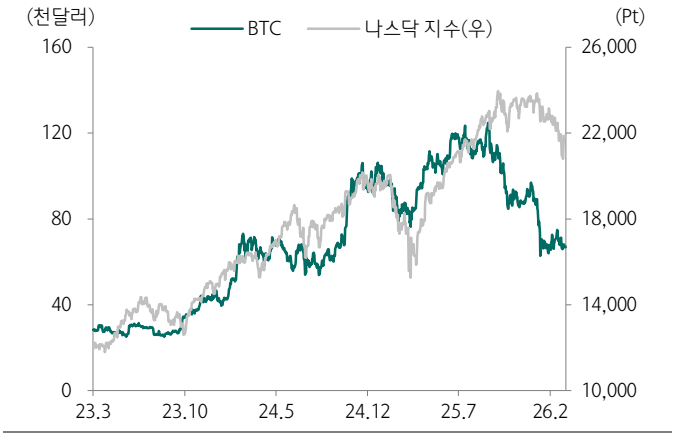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 | 2026.4.6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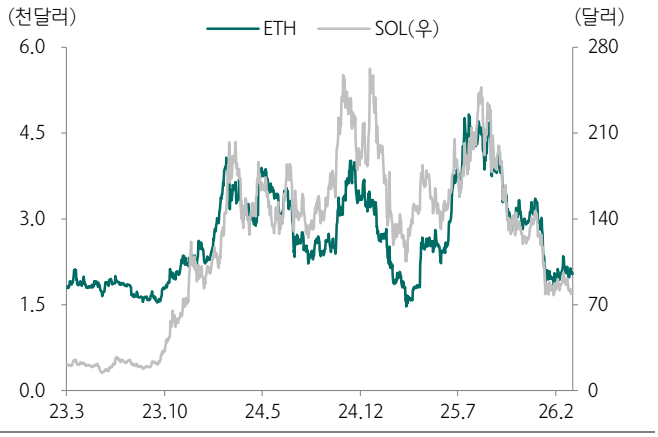
- 디지털자산 시장은 3/29~4/5 동안 큰 방향성, 가격 변동이 없었다. 주요 코인들의 수익률은 BTC +1.3%, ETH +2.8%, SOL -2.0%를 기록했다. 3/30 트럼프 대통령 이란 관련 연설 이후 나스닥 지수와 함께 소폭 반등했으나 재차 하락하여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무책임자가 클래리티 액트의 보상 지급 쟁점 관련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별도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번 주 공개를 예상한다. 미국 재무부는 4/1 지니어스 액트 이행을 위해 87페이지 분량의 규칙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지니어스 액트를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을 갖추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빠르게 세부 규정들을 갖춰 2026년 11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
- 4/2 코인베이스, 클라우드플레어가 설립한 x402 재단이 리눅스 재단 산하로 이관됐다. 리눅스 재단 거버넌스 아래서 운영되며 AI 에이전트 경제의 M2M 거래에 최적화된, 중립적인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아마존웹서비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베이스, 서클, 코인베이스, 구글,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솔라나, 스트라이프, 폴리곤 등이 참여한다. 결국 B2B, B2C의 결제도 AI 에이전트로 편입될 미래에 새로운 결제 표준을 확립하는 움직임이며, 실적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중립 표준을 지향하기에 이권 다툼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다. 빠른 발전이 기대된다.
- 이번 x402 재단의 리눅스 재단 이관 과정에서 참여 명단에 카카오페이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아직 당장 매출 기여나 실적 반영을 기대할 단계는 아니지만, 글로벌 AI 결제 표준 논의의 초기 멤버십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결제 규제 이슈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거래소의 지분 규제와 같은 주제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되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은 목적물이 아닌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당장 보이는 준비금 수익, 이권보다는 향후 활용처, 인프라 구축으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다. 글로벌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카드+API+AI agent에 대한 표준이 세워졌으며 빅테크들의 참여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핀테크·결제 기업 평가, 제도화 과정에서도 가맹점 결제 적용 가능성, 결제 비용 효율화와 같은 단기 이정표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여 AI 에이전트 경제를 준비할 수 있는지가 중장기 경쟁력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단순 표준 참여뿐만 아니라 B2B, B2C AI 에이전트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증 사례를 기대한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2026년 4월 3일 | Global Equity

테슬라(TSLA.US)

1Q26 판매: 35.8만대(+6%). 컨센서스 하회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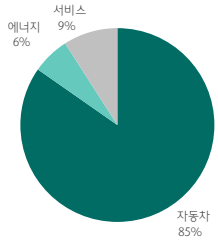
TP(컨센서스)	415.9 USD
CP(4.3)	360.6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자유소비재
주요 영업	자동차
홈페이지	www.tesla.com
시가총액(십억USD)	1,016.7
시가총액(조원)	1,375.2
52주최고/최저()	488.5399/182
주요주주 지분율(%)	
일론 머스크	11.01
VANGUARD GROUP	6.9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10.6)	(17.3)	34.9
상대	(6.3)	(15.3)	12.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97,690	94,827	103,434	120,894
영업이익	7,076	4,355	5,749	9,237
순이익	7,091	3,794	6,636	9,304
EPS(USD)	2.4	1.7	1.9	2.7
EPS(YOY, %)	(22.4)	(31.4)	17.4	36.2
ROE(%)	10.5	4.9	6.7	7.7
PER(배)	195.9	373.1	185.0	135.8
PBR(배)	17.8	20.5	14.1	12.9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1Q26 판매: 인도대수 기준 +6% (YoY), -14% (QoQ)

테슬라의 2026년 1분기 판매(인도 기준)는 35.8만대(+6% (YoY))로 모델3/Y가 34.2만대(+6%), 모델 S/X 및 사이버트럭은 1.6만대(+25%)를 기록했다. 1분기 판매는 블룸버그 기준 시장 기대치인 36.5만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전체 판매는 14% 감소했고, 모델 3/Y가 16% 감소한 반면, 모델 S/X 및 사이버트럭은 39% 증가했다.

2026년 1분기 생산은 42.2만대(+16% (YoY))로 모델 3/Y는 40.8만대(+18%), 모델 S/X 및 사이버트럭은 1.4만대(-20%)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전체 생산은 3% 감소했고, 모델 3/Y가 3% 감소, 모델 S/X 및 사이버트럭은 18% 증가했다.

ESS 부문은 2026년 1분기 8.8GWh(-15% (YoY), -38% (QoQ))를 출하했다.

판매대수 하회 속에서 체크해야 할 점 3가지

테슬라의 1분기 판매가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점과 함께 몇가지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낮다. 2025년 1분기에는 신형 모델Y 출시 전 수요 지연 및 공장 라인 교체로 인한 일시 생산 중단 등으로 기저가 낮았다. 낮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2026년 1분기 판매대수 증가율이 +6% (YoY)를 기록한 것은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로 인한 수요 감소를 금융 프로모션(최저 0% 금리 할부 제공)으로 만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델3/모델Y(비중 95%)로 집중된 모델 라인업이 노후화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할 방법 중 하나로 세미와 사이버캡, 그리고 모델2 등의 출시를 통한 신차 효과가 필요하다. 둘째, 재고가 증가했다. 생산-판매의 차이가 2025년 4분기 1.6만대에서 2026년 1분기 6.4만대(생산 42.2만대-판매 35.8만대)로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5년 4분기 재고일수가 15일로 여전히 낮았는데, 2026년 1분기 재고일수 및 2분기 이후 재고 소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ESS 출하량이 감소했다. ESS 출하량은 2025년 49% 증가했는데, 2026년 1분기(8.8GWh)에는 15% (YoY), 38% (QoQ) 감소했고, 시장 기대치였던 14.4GWh에도 39% 하회했다.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실적발표에서 ESS 수요 강세는 지속되나, 저가 경쟁 심화, 정책 불확실성, 관세 비용 등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2026년 1분기 실적발표에서 ESS 출하량 감소의 원인이 정책/관세 등으로 인한 공급 지연인지, 아니면 경쟁 심화로 인한 수주 감소인지를 확인하고, 2분기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사점: 자동차/에너지 부문의 수익성 방어는 로보택시/로봇 모멘텀의 지지 기반

1분기 실적발표(4/22)에서 전체/자동차/에너지 부문의 GPM을 체크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판매대수 33.7만대와 ESS 출하량 10.4GWH 상황에서 전체/자동차/에너지 GPM이 각각 16.3%/16.2%/28.8%였기에 2026년 1분기에는 17%/17%/25%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에너지 부문의 펀더멘털 훼손이 없어야만, 주가가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적/생산적 진전 및 서비스 확대 등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ch&Stock Weekly

2026.04.03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앤스로픽 신모델에 대한 문서 유출로 사이버보안 변동성 증가

사이버보안

- 앤스로픽의 CMS 설정 오류로 미공개 자료 약 3,000건이 공개적으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스토어에 노출, 그 중에는 "Claude Mythos"라는 신규 모델을 소개하는 초안 블로그 포스트 포함.
- 앤스로픽은 이 모델이 기존 최고 성능 모델 Claude Opus 4.6을 훨씬 상회하는 새로운 티어인 'Capybara'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 발견하고 악용할 가능성을 시사
- AI가 기존 보안 벤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AI 기반 사이버 공격 속도를 기존 보안 솔루션이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유출건에 대한 뉴스가 발표된 날 사이버보안주 급락. 이후 주요 대형 보안주 중심으로 반등
- 클로드 미토스 유출건은 AI가 사이버 공격 가속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보안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필요성 부각
- AI 기업 보안 툴이 성과를 낼 경우 기존 주요 보안업체로 향하던 보안 예산이 분산되거나 가격 압박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그러나 대형 보안 업체들의 진짜 해자는 기술력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기업의 인프라 시스템에 깊숙하게 연동되어 있고 이들 대형 보안 사업자가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AI 공격 대응력을 갖출 수 있어 AI 랩의 잠재적인 시장 진입에 대해 강력한 방어력 보유

미국 우주 산업

스페이스X 상장 절차 본격 돌입,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정표

- SpaceX가 SEC에 기업공개를 위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돌입. 주당 가격과 매각 주식 수 등 세부사항은 향후 추가 서류를 통해 공개될 예정. Bloomberg에 따르면 SpaceX는 이르면 올해 6월 IPO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하고, 기업가치 평가액은 1.7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주력 사업인 발사체 서비스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매출액은 2025년 1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스타링크 가입자 급증을 바탕으로 2026년 매출액은 24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xAI 합병 기준 2026년 매출액 전망치 290~300억을 추정할 경우 IPO 목표 기업가치 1.75조 달러는 PSR 약 58배 수준.
-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상당부분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음. 일론머스크는 우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테마를 주도하기 위해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용 자체칩 생산을 위한 테라팹 프로젝트와 우주 컴퓨팅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발표. 기술적, 경제적 장벽이 높아 실현되기까지 머스크 구상보다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 '역사상 가장 기대 받는' 스페이스X IPO는 우주 산업이 주류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우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

GE버노바(GEV.US): 분할 상장 후 2년, 신고가 지속의 비결

3월 S&P 100 편입 효력 발생

- GE 버노바 주가는 YTD +25.2%, 1년간 +168.5% 상승하며 섹터(산업재, YTD +1.3%)와 지수(S&P 500, -7.1%)를 큰 폭 상회했으며 신고가를 지속 경신
- 주가 상승 배경은 크게 3가지
- 1) 3월 23일부터 S&P 100 지수 편입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관 및 인덱스펀드 자금의 유입이 증가
- 2) 3월 18일 BofA 글로벌 산업재 컨퍼런스에서 가스터빈 수요 지표 가속화와 마진 증가를 확인
- 3) 800V DC 전환을 겨냥해 하이퍼스케일러와 SST(Solid-State Transformer)를 핵심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계약 가시성 높음

2026년 4월 6일 | Global Equity

BYD(1211.HK)

유가 급등의 수혜주, 앞으로의 중국 실적이 관건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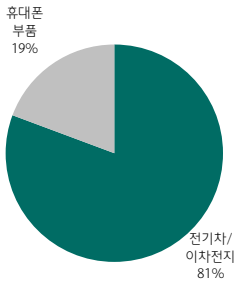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24.35 HKD
CP(4.3)	103.90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거래소
산업 분류	자유소비재
주요 영업	자동차
홈페이지	www.byd.com
시가총액(십억HKD)	995.4
시가총액(조원)	191.9
52주최고/최저(HKD)	159.267/88.5
주요주주 지분율(%)	
JIANGSU ZHONGTIAN TECH GRP	22.68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6.47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9.3	(5.0)	(16.8)
상대	9.8	2.4	(26.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602,315	777,102	941,403	1,063,519
영업이익	34,993	36,679	48,097	60,866
순이익	30,041	40,254	43,162	53,703
EPS(CNY)	3.6	3.6	4.6	5.7
EPS(YoY, %)	0.0	0.0	29.0	22.5
ROE(%)	26.0	16.2	16.2	17.5
PER(배)	54.3	23.9	19.0	15.5
PBR(배)	4.3	3.4	3.0	2.6
배당률(%)	1.6	0.4	1.2	1.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3월 중국 판매 실적, 기술 업데이트로 MoM 큰 폭 개선

BYD의 3월 전기차 도매 판매대수는 총 30만대(MoM +58%/YoY -20%)로 그 중 중국 판매대수는 18만대(MoM +101%/YoY -41%), 해외는 12만대(MoM +19%/YoY +66%)를 기록했다. 3월 중국 판매 실적이 전월 대비 큰 폭 개선된 이유는 춘절 연휴 영향 외에도 지난 3월 초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1,500kW 초고속 충전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이 출시된 이후 중국 시장에서 신규 계약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BYD의 전체 판매대수는 중국 실적(YoY -52%) 부진으로 YoY 30% 감소한 70만대를 기록했다. 동기간 해외 판매대수는 32만대로 2025년(YoY +151%)에 이어 YoY 56% 고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해외 비중은 BYD 전체 도매 판매대수의 46%를 차지해 4Q25의 26% 대비 QoQ +20%p 확대되었다.

차량 대당 순이익은 2분기부터 뚜렷한 개선세 가능할 전망

올해 1분기 고마진의 해외 판매대수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품 Mix 개선이 예상되지만, 동시에 전체 판매대수 급감에 따른 차량 대당 고정 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4월 말 발표 예정인 1분기 실적에서는 차량 대당 순이익 개선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1)중국 판매 실적 개선, 2)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체 판매대수 개선이 동반된다면 2분기 실적부터는 뚜렷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BYD는 올해 초고속 충전 기술 및 인프라 확장과 차세대 기술 기반의 신차 출시를 통해 중국 판매 실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중국 내 BYD의 고속 충전소는 올해 3월 초 기준 총 4,239개에서 연말까지 4배 이상 증가한 총 2만개로 확대를 계획 중이며, 도심 지역 90%, 고속도로 1/3 커버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기술을 탑재한 양왕/덴자 등 중고가 브랜드 중심으로 11개 신차를 출시해 전년도 Qin/Yuan/Song 계열의 저가 모델 중심에서 Mix 개선이 기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올해 2분기 헝가리 공장 가동 개시로 유럽 지역 첫 현지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연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개시도 예상된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은 2025년 40%에서 올해 50~60%대로 확대가 예상되며 이와 함께 차량 대당 수익성 개선이 동반될 전망이다.

유가+해외 모멘텀은 명확한 상황, 향후 중국 월간 실적이 중요

BYD의 주가는 2월 말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와 차세대 기술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며 H주/A주 기준 9.4%/10.8% 상승했다. BYD가 최근 3월 말 실적 발표에서 최근 3개년 중 처음으로 중국 판매대수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은 만큼 중국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유가 강세 지속에 따른 중국/글로벌 전기차 수요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향후 중국 실적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주가 모멘텀은 재차 강화될 수 있다.

신차 효과 및 유가 급등 수혜 가능한 전기차 기업에 주목

Hana China Weekly | 2026.4.3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전기차: 3월 주요 상위업체 판매대수 MoM 개선세 뚜렷

- BYD는 30.0만대(YoY -20.5%/MoM +58.0%)로 중국 시장에서 신차 효과 반영되며 전월 대비 판매대수 크게 개선. BYD는 2026년 해외 판매대수 목표를 기존 130만대에서 150만대로 상향 조정.
- 지리자동차는 12.7만대(YoY +6.4%, MoM +8.4%)로 해외 판매대수가 8.1만대로 전년대비 120% 급증.
- 샤오펑은 2.7만대(YoY -17.4%, MoM +79.7%)로 분기 기준 가이던스 부합 수준 기록. 4월 2일 Mona M03 세단의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 자체 개발 튜링 AI칩 기반 컴퓨팅 기능을 최초로 적용.
- 니오는 3.5만대(YoY +136.0%, MoM +70.6%)로 연초 비수기가 지나가면서 인도량이 큰 폭으로 증가. 3월에는 업데이트된 ES8이 1.6만대의 인도량을 기록하며, 중국에서 3개월 연속 40만위안 이상의 베스트셀러 대형 SUV 및 베스트셀러 모델 타이틀을 확보. 또한 신차 출시 중심 전략을 통해 판매 모멘텀 유지 중.

Zhipu AI(2513.HK): 연구개발비 증가로 2025년 순손실 확대, GLM 유료 모델 수요는 빠르게 확대 중

- 2025년 매출액은 7.2억위안(YoY +132%) 증가했으나 컨센서스 4.2% 하회, 순손실은 47.2억위안(YoY +60%)으로 연구개발비(YoY +45%) 증가에 기인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 확대. Zhipu AI는 기존 온프레미스 모델 구축 중심에서 클라우드 기반 API 서비스로 사업 구조를 전환 중, 고객들이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활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됨.
- 실제로 2026년 춘절 연휴 이후 Zhipu가 총 83% 수준의 API 가격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토큰 사용 규모는 12월 대비 4배 이상 증가. Zhipu의 AI 코딩 패키지 서비스인 GLM Coding Plan은 올해 3월 기준 유료 이용 개발자 규모가 24만명, 플랫폼 등록 사용자 수가 400만명을 돌파.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인 Bytedance, Alibaba 등 주요 테크 기업이 이미 GLM-5을 채택 중. 2026년 4월 GLM 5-1를 출시하고, 연내 5.5 버전도 발표할 예정. 차세대 GLM 6 모델은 모델 자동화 운영을 목표 중.

유비테크(9880.HK): 2025년 연간 매출 및 2026년 출하 가이던스 컨센서스 상회

- 2025년 매출액 20억위안(YoY +53%)으로 컨센서스 상회, 순손실 -7억위안(전년동기 -11억위안)으로 컨센서스 부합.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Walker S 시리즈(S2/S3) 출하량 가이던스를 5,000대 이상으로 제시. 기존 가이던스인 2,000~3,000대 대비 약 2배 이상 확대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 상회. 2026년 하반기 차세대 모델인 'S3' 출시 예정. 경영진은 2026년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검증 단계에서 상업화 단계로 전환되는 원년으로 평가하며, 향후 수익성(GPM 목표 43~45%) 개선 가능성도 언급.

2026년 4월 3일 | Global Equity

Telsa (TSLA)

단기 실적 압박 vs AI 기반 구조적 성장
- Underwhelming Start for FY26 Deliveries: All Eyes Remain on AI

OUTPERFORM

TP(컨센서스)	$600.00
CP(4.2)	$360.59

Company Information

Market Cap (M)	$1,394,966
Enterprise Value (M)	$1,638,145
Shares Outst (M)	3,539.0
52-Week Range	$214.25 - $498.83

REV(M) (in $)

FYE	Dec	2025A	2026E	2027E
Q1	Mar	19,335.0A	23,791.5E	28,412.4E
Q2	Jun	22,496.0A	26,354.9E	30,675.5E
Q3	Sep	28,095.0A	28,901.2E	31,551.6E
Q4	Dec	24,901.0A	29,643.2E	33,580.9E
YEAR*		94,827.0A	108,690.8E	124,220.3E

EPS (in $)

FYE	Dec	2025A	2026E	2027E
Q1	Mar	0.27A	0.25E	0.34E
Q2	Jun	0.40A	0.38E	0.61E
Q3	Sep	0.50A	0.52E	0.68E
Q4	Dec	0.50A	0.70E	0.86E
YEAR*		1.66A	1.85E	2.49E

Pricing data provided by Thomson Reuters.

*Numbers may not add up due to rounding

Compliance Notice

본 리포트는 Wedbush 사의 Analyst Dan Ives가 작성한 보고서('Underwhelming Start for FY26 Deliveries: All Eyes Remain on AI', 4월 2일)를 번역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Wedbush의 투자의견이 반영된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alyst 박승진 sj81.p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예상을 하회한 인도 실적: 유럽 리스크 지속 vs 중국 견조한 성장

Tesla의 1분기(FY1Q26) 차량 인도량이 35.8만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한 수치이지만, 시장 컨센서스인 37.0만대를 소폭 하회한 숫자이다. 전반적으로 수요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여전히 유럽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3/Y의 인도 대수는 34.2만대로, 시장 예상치인 35.5만대를 하회하였으며, 기타 모델 차량들의 인도량은 1.6만대로 예상치 1.2만대를 상회했다. 총 생산은 40.8만대를 기록했는데 Model S/X 생산 중단 이후의 생산 구조를 감안하면, 이는 170만대의 FY26 연간 인도량 목표 달성을 위해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FSD 승인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이 유지되면서 여전히 Tesla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당사(Wedbush)는 규제 승인 시점이 올 상반기 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 중이며, 이로 인해 유럽 판매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첫 두 달간 인도 대수는 12.8만대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2월에는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Tesla의 주요 성장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에너지 사업 부문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설치 규모가 8.8GWh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14.4GWh와 전분기의 14.2GWh를 모두 하회했다. 이는 최근 LG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차세대 Megapack 3 및 Megablock 제품 출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인도량 실적은 아쉬운 수준이었으나, 이는 현재 글로벌 전기차 수요 환경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안의 결과로 판단된다. Tesla가 점차 전략의 중심을 AI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사(Wedbush)는 4월 22일 예정된 1Q26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 방향과 세부 지표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AI 중심 전략 전환 가속화: Robotaxi·FSD·Optimus로 밸류에이션 재편 기대

올해에도 여전히 AI가 Tesla의 핵심 투자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Robotaxi 부문의 확장과 FSD 업데이트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Tesla의 AI 전략에 집중되고 있으며, Tesla는 장기 전략을 AI와 로보틱스 기반의 지속 가능한 수익원 구축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Cybercab, Optimus, 배터리, AI 컴퓨팅 확장을 위한 신규 공장에 약 200억달러 규모의 자본지출을 집행하며 사업 구조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FSD 역시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Tesla는 지난 2월 14일, 기존의 일회성 구매 방식에서 구독 전용(subscription-only) 모델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반복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당사(Wedbush)는 이로 인해 FSD 보급률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Tesla 의 재무모델과 마진 구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Tesla 는 이미 오스틴에서 비감독형(Unsupervised) Robotaxi 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는 연내 다수의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Cybercab 의 본격적인 양산은 4~5 월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Tesla 의 AI 밸류에이션을 본격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AI 전략의 다음 단계는 로보틱스 사업의 확장이다. Gen3 Optimus 의 경우 대량 생산을 위한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수년간 연간 100 만대 생산 체제 구축을 목표로 Model S/X 생산시설을 Optimus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2026 년 전반에 걸쳐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 권한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사(Wedbush)는 Tesla 의 성장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AI 시대 진입에 따른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존 시각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Tesla 의 목표주가는 600 달러, 투자의견은 OUTPERFORM 으로 제시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6	186,200	신규	-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4/6	145,500	신규	-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4/6	93,400	신규	-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한미약품 (128940.KS)	4/6	507,000	신규	-	• 2026년 상반기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 유효 • 하반기 국산 비만치료제 출시와 연간 1건 이상의 기술이전 가이던스를 제시
엔씨소프트 (036570.KS)	4/6	211,500	신규	-	• JustPlay 인수로 글로벌 캐주얼 게임 라인업과 AdTech 역량을 내재화 • 하반기 캐주얼 장르 스튜디오에 대한 추가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
CJ제일제당 (097950.KS)	4/6	226,000	신규	-	• 하반기 유가·곡물가 상승과 중국 돈가 회복에 따른 라이신·핵산 수요 개선 기대 • 4Q25 실적 발표에서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피력
LX인터내셔널 (001120.KS)	4/6	53,100	신규	-	• 석탄 가격 강세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트레이딩 마진 확대 기대 • 자원·트레이딩/신성장 부문의 가파른 회복이 예상돼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
리노공업 (058470.KQ)	4/6	110,400	신규	-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케이엠더블유 (032500.KQ)	4/6	28,500	신규	-	•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와 AT&T·버라이즌의 CAPEX 확대 기대 본격화 • 삼성전자·에릭슨향 공급 가능성 확대를 통한 2027년 실적 급증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6	14,420	신규	-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29%	+0.23%p	+54.80%	+26.4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알테오젠 (196170.KQ)	4/6	365,500	신규	-	• 4월 J-code 발효에 따른 키트루다 Qlex 처방 확대, 추가 본계약 가능성 • Dapirolizumab pegol 및 Felzartamab 추정하나, LEQEMBI로도 확대 가능
케이엠더블유 (032500.KQ)	4/6	28,500	신규	-	•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와 AT&T·버라이즌의 CAPEX 확대 기대 본격화 • 삼성전자·에릭슨향 공급 가능성 확대를 통한 2027년 실적 급증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186,200	11.36%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398,500	1.01%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6,600	5.23%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45,500	2.54%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47,500	4.51%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82,600	10.87%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85,100	19.02%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12,000	0.37%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24,500	10.56%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오리온 (271560.KS)	4/1	128,000	129,800	1.41%	• 하반기 '카카오' 등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 완화가 영업마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당배당금의 유의미한 증액 등 주주정책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97%	-1.74%p	+28.38%	+0.0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5,575	-13.5%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225	-12.8%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4,060	-5.1%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800	60.0%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5.76	-0.1%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9.25	29.8%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2.32	15.7%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3.81	10.3%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5	4.6	4.7	4.8	4.9	4.10	4.11
		▪ 중국 3월 외환보유액 (E--, 이전치 $3,427B) ▪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잠정) (E--)	▪ 한국 2월 BoP 경상수지/상품수지 (E--/--, $13,259m/$15,173m) ▪ 일본 2월 BoP 경상수지 (E--, 이전치 ¥941.6b) ▪ 미국 3월 FOMC 회의록	▪ 미국 4월 1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한국 4월 금융통화위원회 (E 2.5%, 이전치 2.5%) ▪ 미국 3월 CPI (E--, 이전치 2.40%) ▪ 중국 3월 CPI (E--, 이전치 1.30%)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최종) (E--/--, 1월 -2.1%/0.3%) ▪ 중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전년동월대비) (E $111b/13%/15% 2월 $90.98b/39.6%/13.8%) ▪ 미국 3월 전월대비 PPI 최종수요 (E--, 2월 0.7%)	▪ 한국 3월 실업률(계절조정) (E--, 2월 2.9%)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핵심기계수주 (E --/--, 1월 -5.5%/13.7%)	▪ 중국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최종) (E --/--, 1.2%/2.5%) ▪ 미국 4월 2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